

건축·도시 설계를 위한 척도연습

: 오성훈·김원경(auri, 2013)

김원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원

공간에 대한 설계자의 판단은 상당부분 설계자의 개인적 경험과 판단에 의지하게 되며, 이는 공간에 대한 숫자의 결정으로 연결된다. 그러므로 개인적 경험과 공간적 크기를 숫자로 연결하는 것은 설계자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이 때문에 공간의 척도에 대한 감각이 부족해 설계자가 원하지 않거나 천편일률적인 공간이 조성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된다.

이 책은 우리 인체치수에서부터 도시공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규모에 걸쳐 우리에게 친숙한 보편적인 사례를 이용해 공간과 치수의 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건축·도시 설계를 위한 척도연습」은 총 3개의 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우리 몸에서부터 도시규모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흐름으로 구성돼 있고, 각 부문과 주제별 척도의 기준이 되는 시설과 요소가 선정돼 있다.

먼저 1장 Human Scale에서는 인간의 몸에 대한 숫자와 우리가 살고 일하는 방에서 접하게 되는 물체에 대한 숫자, 그리고 집 안의 여러 부분의 숫자에 대해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신체와 관련된 숫자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들의 치수는 표준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으며, 각 사물들의 잘 알려지

지 않은 유래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설명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주 친숙한 것들이나 일상적으로 접하는 부분의 크기 등은 설계자에게 있어 작지만 아주 중요한 기본 지식이다.

2장 Street Scale에서는 우리가 매일 걸거나 차를 타고 지나는 길, 그 옆에 있는 크고 작은 건축물들, 그리고 길과 건축물이 만들어 내는 공간에 대한 척도를 익힐 수 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상적인 공간에 대한 척도를 아는 것은 설계자에게 매우 중요하다. 2장에서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보도와 차도에 설치된 시설물들의 표준 치수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으며, 63빌딩처럼 잘 알려진 건축물들의 규모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D/H비 부문에서는 서울의 명소들을 중심으로 각 장소들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그 공간의 가로와 건축물이 만들어 내는 D/H비율과 그에 따른 공간의 특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3장 Urban Scale에서는 보편적으로 잘 알려진 공원과 광장,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지구들(Districts),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면적을 익힐 수 있다. 이처럼 넓은 단위의 면적은 우리가 쉽게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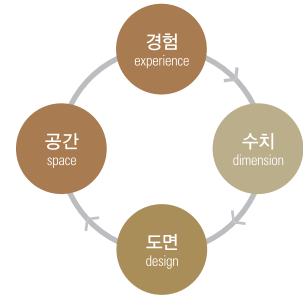


출판물

전자책 발간



『건축·도시 설계를 위한 척도연습』은 건축·도시설계에 막 입문한 학생이나 실무자가 공간과 치수에 대한 감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획된 책이다. 복잡다단한 공간에 대한 추상, 이해, 이론, 역사, 문화에 대한 담론적 상황을 잠시 접어두고, 공간에서 읽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숫자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익숙한 공간들의 면적을 알아두는 것은 설계자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제 막 설계를 시작한 학생들에게 이처럼 넓은 규모의 면적은 쉽게 이해하고 체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축구장의 몇 배’ ‘여의도의 몇 배’ 하는 식으로 비교대상을 제시해 이해를 돕고자 했다.

『건축·도시 설계를 위한 척도연습』은 건축·도시설계에 입문한 학생이나 실무자가 공간과 치수에 대한 감을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기획됐다. 복잡다단한 공간에 대한 추상, 이해, 이론, 역사, 문화에 대한 담론적 상황을 잠시 접어두고, 공간에서 읽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숫자에 친숙해지기를 권한다. 설계를 막 시작한 학생들에게는 쉽고 재미있는 교재로, 기존 전문가들에게는 확인의 기회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본 단행본은 iBooks Store를 통해 전자책으로도 발간됐습니다. 전자책에서는 대화식 이미지, 건축물 3D, 동영상 등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책은 iPad에서만 구동되며, iBook Store 미국마켓에서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플 미국 계정이 필요합니다. 구매 전에 Sample Book을 다운로드 받아 살펴볼 수 있습니다.)

CONSERVATION BASICS

: English Heritage Staff 저
(Ashgate Publishing, 2013)

심경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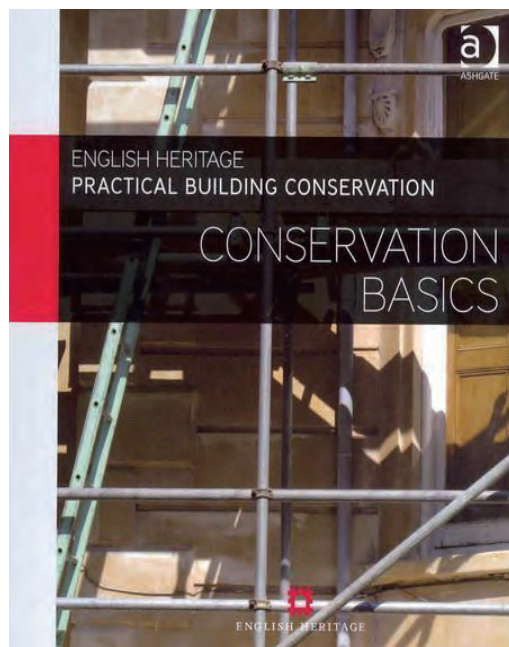
이제 새로운 도시개발을 통한 도시성장의 시대는 뒤로하고 기존 도시와 오래된 건물의 재생과 관리, 재활용이 주목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문제, 인구감소, 세계 경제의 악화 등 많은 요인들이 복합되어 작동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도 이에 맞춘 도시 및 건축 정책과 관리, 지원책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오래된 역사적 건축물과 지역, 장소를 철거하지 않고 현대적으로 잘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년간의 경험과 대표적인 성공사례들을 통해 이것이 사회·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인식과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그럼에도 건축물 보존과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사회는 아직은 초보자 수준에 있다. 이에 100년이 넘는 건물이 도처에 남아있는 영국에서 건축물 보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English Heritage에서 출간한 「CONSERVATION BASICS」은 국내 건축물 보존에 좋은 참고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역사적인 건축물과 장소의 유지와 보수, 관리에 대한 책으로 21세기에 건축물 보존을 뒷받침하는 이론과 원리를 설명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담고 있다.

이 책은 건물 보존을 위한 기술 실용서 핸드북 시리즈로서, 본래 John and Nicola Ashurst가 1988년에 쓴 5권의 서적



이 책은 역사적인 건축물과
장소의 유지와 보수, 관리에 대한 책으로
21세기에 건축물 보존을 뒷받침하는
이론과 원리를 설명하고,
어떻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건물의 보존은 건물에 대한 이해와, 건물과 재료의 변질, 그리고 변질된 것에 대한 처방의 이해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과거로부터의 교훈과 경험에 따라 입증된 것들에 의존한다. 물론 여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의 건물보존 방식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을 대체하여 올해 English Heritage에 의해 발간되었다. 이 시리즈는 주로 역사적 건물을 관리하거나 그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건축가, 조사자, 엔지니어, 보존가, 계약자와 보존위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와 큐레이터,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서적이라고 서문에서는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CONSERVATION BASICS」의 내용은 English Heritage의 직원과 컨설턴트, 건축물을 보존하는 작업자와 연구자들이 오래 동안 모든 건축유형의 재료와 시스템이 변질된 것을 보존을 위해 다루어 온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건물자재나 건물 요소의 이해와 그것이 변질된 이유, 그리고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건물보존 개념의 역사, 현재 법제도 및 정책과 지침, 유지와 수선을 위한 보존계획, 조사 및 연구방법, 생태학적 고려사항, 건물 유지와 개보수 관리, 역사 건축물 및 건물군 위기 대처계획 등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3장의 유지와 수선을 위한 보존계획에서는 보존에 대한 중요성과 보존계획에 대한 단계별 과정을 설명하고, 실제 사례들을 8가지 사항에 초점을 두고 도면과 함께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8가지 사항은 ‘수선 or 재건?’, ‘보존관리의 실행’, ‘본래 재료의 디자인과 결함(flaw) 다루기’, ‘현대적 사용’, ‘건축물 특징 살리기’, ‘초기 변형의 제거’, ‘다양한 용도로의 전환’ 등이다. 다음으로 조사 및 연구방법에서는 사진촬영 및 실측방법부터 열성능 및 습도 등과 같은 건축물의 기능상태 조사까지 조사항목과

각 항목별 조사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있다. 또한 유지와 보수 관리에서는 모든 유형과 규모의 건물 유지 및 보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계획, 관리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위기 대처계획에서는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 화재나 홍수와 같은 예기치 않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건물의 보존은 건물에 대한 이해와, 건물과 재료의 변질, 그리고 변질된 것에 대한 처방의 이해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과거로부터의 교훈과 경험에 따라 입증된 것들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물론 여기에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의 건물보존 방식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이 필요하고 오랜 시간 역시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경험과 이해를 높이는 것은 건물보존에 매우 긍정적인 습득방법이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우리의 오래된 건물을 유지·관리하는데 모두 해당될 수는 없으나 이제까지 과거로부터의 교훈과 이해를 습득할만한 경험이 부족하고, 관련된 기초 서적이 부재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할 때 이 책은 건물보존의 개념과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다.